



경기 취소와 비로 연달아 등판이 밀렸던 KIA 좌완 윤영철이 10일 롯데를 상대로 시즌 두 번째 등판에 나선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윤영철 15일만의 등판...약일까, 독일까



지난달 26일 키움전 등판이 '시즌 유일'
1일 전체 경기 취소·5일 LG전 비로 취소
오늘 롯데전 등판...경기감각 회복 관전

윤영철의 길어진 휴식, 득이 될까? 득이 될까?
KIA 타이거즈는 올 시즌 '에이스' 제임스 네일과 '새 얼굴' 아담 윌러로 외국인 원투펀치를 구성했다. 또 좌완 양현종과 윤영철 그리고 우완 김도현으로 토종 선발진을 꾸렸다.

올라가 새로 선발진에 가세했고, 지난 시즌 임시 선발로 우승에 기여한 김도현이 5선발 경쟁의 승자가 되면서 선발로 시즌을 열었다. 프로 3년 차인 윤영철은 이번에도 확실한 선발로 시즌을 준비했고, 시작했다.

공 구위와 스피드 향상을 위해 비시즌부터 투구품을 가다듬은 윤영철은 개막 전까지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시즌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마음과 다른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다.

KIA는 9일 롯데를 상대로 시즌 14번째 경기를 소화했지만 윤영철이 출전한 경기는 지난 3월 26일 키움전이 유일하다.

윤영철은 개막 후 단 1경기 등판에 그쳤고, 결과도 좋지 못했다.

겨우내 준비를 잘했던 윤영철은 자신감을 가지고

마운드에 올랐지만 시즌 첫 성적은 2이닝 6피안타 3볼넷 2탈삼진 6실점(2자책점)이었다.

박찬호의 부상으로 유격수로 출전한 윤도현이 2회 포구 실책을 기록하면서 어려운 경기가 전개됐다. 2회 9명의 타자를 상대하면서 진땀을 흘린 윤영철은 3회 연속 안타 뒤 볼넷까지 기록하면서 무사 만루에서 마운드에서 물러나야 했다.

KIA는 빠르게 활동하를 투입하면서 분위기 전환에 나섰지만 경기는 10-17, 패배로 끝났다.

고졸 투기답지 않은 여유로움과 경기 운영 능력으로 프로 첫해부터 선발 자리를 꿰찼던 윤영철이지만 이날 경기는 달랐다.

윤영철도 "나답지 못했다"고 인정할 정도로 과장, 결과 모두 좋지 못했다.

초반에 실책이 나오면서 페이스가 흔들린 윤영철은 침착한 승부를 하지 못하면서 준비한 것을 다 보

여주지 못했다.

윤영철은 "다른 큰 문제는 없다. 내가 침착하게 승부를 하지 못했다. 더 차분하게 경기를 했어야 했다"고 첫 등판을 평가했다.

개막에 맞춰 단계별로 준비가 잘 됐던 만큼 첫 경기 부진은 윤영철에게 쓴 보약이 됐다.

윤영철은 첫 패배를 거름 삼아 이를 악물었지만 부진 만회 기회를 아직 얻지 못했다. 연달아 윤영철의 선발 등판이 밀린 탓이다.

1일 삼성전 선발로 준비했던 윤영철은 이날 경기가 창원 NC파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취소되면서, 6일 LG전 선발로 자리를 옮겼다. 하루씩 일정을 미루는 대신 선발진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 윤영철의 턴을 거른 것이다.

윤영철은 "LG 잠실전은 처음이다.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이겠다"고 칼을 갈았지만 이번에는 비

가 윤영철을 막았다.

5일 잠실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경기가 취소됐고, KIA는 이날 등판을 준비했던 윌러를 윤영철 대신 6일 선발로 내세웠다.

그리고 초반 페이스가 좋은 김도현이 4일단을 소화할 수 있도록 8일 선발로 투입하면서 윤영철의 기다림은 길어졌다. 결국 윤영철은 첫 등판 이후 보름 만인 10일, 사직 구장에서 시즌 두 번째 경기에 나서게 됐다.

차분하게 컨디션을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지만 오래 등판을 쉬었던 만큼 경기감각에 대한 우려는 있다.

에타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윤영철이 어떤 성적표를 작성할지 사직 마운드에 시선이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양용은 "60대에도 선수로 뛰고 싶다 시니어 챔피언십 우승하면 금상첨화"

'亞 첫 메이저 챔프' 자격으로 PGA 마스터스 초청...10일 개막



"저를 아는 사람의 95% 정도는 우즈를 이긴 걸 기억하는 거겠죠."

양용은(53)이 예전 '타이거 우즈(미국)를 메이저 대회에서 이긴 골퍼'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

다.

그는 2009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이저 대회인 PGA 챔피언십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골프계 최고 스타인 우즈와의 대결에서 승리하며 '아시아 최초의 남자 골퍼 메이저 챔피언'으로 이름을 남겼다.

그 덕분에 양용은은 시즌 첫 메이저 대회 마스터스가 되면 대회장인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의 초청을 받는다.

제89회 마스터스 개막을 앞둔 9일(한국시간) 오거스타 내셔널에서 만난 양용은은 "메이저 챔프로서 이런 곳에 초대받아 올 수 있으니 혜택이 있다는 게 실감이 나고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미소 지었다.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던 2009년 혼다 클래식도 제패해 PGA 투어 통산 2승을 거둔 양용은은 2022년부터는 만 50세 선수가 출전하는 시니어 무



8일(현지시간)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 클럽하우스 앞에서 취재진을 만난 양용은. /연합뉴스

대인 PGA 투어 챔피언십에서 뛰고 있다.

지난해 9월엔 어센션 클래식에서 시니어 무대 최강자인 베른하르트 랑거(독일)를 연장전 끝에 제치고 PGA 투어 챔피언십 첫 승을 신고

했다.

PGA 투어 챔피언십을 '골프 도사들의 모임'이라고 표현한 양용은은 "원래 5~6년 정도 뛰는 것이 목표였는데, 하다 보니 60세 넘어서까지는 하고 싶더라"라고 귀띔했다.

특히 PGA 투어 챔피언십 최다 우승자(47승)인 랑거가 지난해 만 66세에도 정상에 오른 것을 보며 그런 동기가 커졌다고 한다.

"프로 생활만 30년 가까이 했는데도 아직도 골퍼가 재미있고, 늘 배운다"는 양용은은 "7~8년째 체중 82~83kg을 유지하는 등 운동과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끝까지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라는 게 저의 신조다. 끝날 때까지는 끝나는 게 아니니 계속 열심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니어 PGA 챔피언십 우승을 달성한다면 금상첨화일 터다.

양용은은 "PGA 챔피언십과 시니어 PGA 챔피언십을 모두 제패한 사례는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의미가 있을 것 같다"면서 "우즈와 또 한 번 경쟁해보고 싶을 듯하다"고 말했다.

올해 12월 50세가 되는 우즈의 PGA 투어 챔피언십 합류 가능성에 대해선 "친했던 동료들의 권유도 있을 테니 몇 차례 대회에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얼마나 출전할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우즈가 합류한다면 PGA 투어 챔피언십이 꽤 찬 느낌이 들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연합뉴스

황선홍 대전 감독 '이달의 감독상'

황선홍<사진> 대전하나시티즌 감독이 '이달의 감독' 영예를 안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9일 황선홍 감독을 2025 시즌 첫 번째 'flex K리그 이달의 감독상' 수상자로 발표했다.

황선홍 감독은 2·3월에 진행된 6경기에서 4승 1무 1패의 성적을 지휘하면서 K리그1 12개 팀 가운데 최다승점(13점)과 최고 승률(75%)을 장식했다.

1라운드 포항스틸러스와의 경기에서 3-0 대승을 기록한 대전은 '디펜딩 챔피언' 울산HD와의 2라운드 맞대결에서 0-2로 졌지만 이후 수원FC(1-0), 대구FC(2-1), 제주SK FC(3-1)를 연



달아 꺾으면서 3연승 질주

를 했다. 3월 마지막 경기로 진행된 6라운드 광주전에서는 1-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4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갔다.

대전은 주만규, 최건주, 신상은 등을 앞세워 2·3월 6경기에서 10골을 터트리면서 K리그1 최다 득점팀이 됐다.

시즌 첫 '이달의 감독'에 선정된 황선홍 감독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제작한 기념 트로피와 상금을 받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신정식 전남축구협회장, 대한축구협 부회장에

광주FC 이정호 감독은 이사로

신정식 전남축구협회장(65)이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에 선임됐다. 광주FC의 이정호 감독은 이사로 활동한다.

대한축구협회가 9일 제55대 집행부 구성을 마무리했다. 김승희 대전 코레일 감독이 협회 행정을 총괄하는 신임 전무이사를 맡으며, 직능단체 추천을 받아 5명으로 부회장단이 꾸려졌다.

신정식 회장과 함께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 이용수 세종대 명예교수, 박항서 전 베트남 국가대표팀 감독, 신대용 전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 감독이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보성 벌교 출신인 신정식 회장은 2001년 전남



축구협회 이사를 시작으로 전남축구와 인연을 맺었으며, 2016년 첫 통합 전남도축구협회장을 맡았다. 그는 2020년과 지난 2024년 12월 3연임에 성공해 3번째 임기를 보내고 있다.

한편 K리그1 광주FC를 이끌고 있는 이정호 감독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연상 사무총장, 김도근 강릉시민축구단 감독 등과 함께 이사로 선임됐다.

광주에서 활약했던 김호남과 전가를(전 세종스포츠포토)도 선수 남녀대표로 이사진에 포함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